

2020 특별메세지

고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사인

1. 고난

고난의 시간이 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행복이 있지만, 고난과 고통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올 때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2. 고난 = 현실

고난은 현실이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버겁게 느껴진다.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고난을 대하는 여러 자세들이 있다.

(1) 숨는다.

[창세기 3:9-10]

9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10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렵다. 자신의 힘으로 절대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고통의 경험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런 두려움은 그 마음 안에 실재가 된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피하는 것이다. 숨는 것이다.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다. 그래서 숨는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은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숨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들었던 첫 마음이 두려움이였다. 다가올 고통의 시간을 알기 때문이다. 아담의 선택은 숨는 일이었다. 나무 뒤에 숨는다고 아담에게 다가올 죄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숨는가? 두려워서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성경은 아담이 숨은 원인을 정확히 말한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2) 견딘다.

[로마서 5:3-4]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앞이로다

견디는 태도이다. 환난이 있다. 어렵다. 말씀은 환난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라고 말한다.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환난에서의 인내를 ‘연단’이라 말한다. 의미있는 견딤이다.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에게 있어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다. 어려운 곳이다. 광야에서의 견뎌냄은 ‘연단’이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장소이다. 다윗을 보라.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시간은 앞으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다.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견딤’, ‘인내’의 시간이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 때는 방법이 없다. 견뎌야 한다.

(3) 통과한다.

[시편 23:4]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다른 태도는 '통과하는 것'이다. 통과에 대한 좋은 예가 다윗의 시편 23편이다. 다윗은 인생의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난다.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통과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이다. 고난의 골짜기가 끝나는 길은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다. 다윗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준다. 그러니 통과하는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쓴 잔을 피할 수 없다면 통과하기로 마음 먹으셨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과하셨다. 기억해야 한다. 내가 고난의 터널 안에 있다면, 빨리 터널을 통과할 때 고난이 끝나는 것이다. 통과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빨리 달려라.

(4) 피한다.

[시편 71:4]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고난을 피하게 하신다. 시편 71:4절에 시편 기자는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다.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한다는 것은 '건져내어 달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늪과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

[시편 91:6-10]

- 6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 7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 8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 9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 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전염병과 재앙이 우리에게 올 때,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피난처로 달려가야 한다. 그 지존자의 품을 나의 거처 삼아야 한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고 찬양하자.

2. 고난의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에는 아주 분명한 영적 원리가 있다. 성경은 고난 자체만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과정'이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고난 뒤의 영광이다. 그 대표적인 원리가 십자가이다. 가장 강력한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결국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로마서 8:17-20]

-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누가 받느냐에 대한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의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때문이다(18절).

놀라운 고백이다.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지표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기대하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다. 영광이라는 것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광은 기쁨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19절). 모든 피조물이 그 영광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값진 것이다. 학개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동 뒤에 나타날, 이전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고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사인이다.